

<번역 노트>

##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יהוה כבוד)의 존대 문제

김동혁\*

### 1. 문제 제기

‘케보드 아도나이’(יהוה כבוד ‘주님의 영광’)는 구약성서에 총 35회 나온다.<sup>1)</sup> 모든 책들에 고르게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23회는 제사장적 전통에 속하는 오경의 제사장 문서(P)와 에스겔서에 나오고(각각 13회와 10회), 그 외에 역대하와 이사야에 각각 4회, 시편에 2회, 열왕기상과 하박국에 각각 1회가 나온다.<sup>2)</sup> 이 중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은 다른 책들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메팅어(Tryggve N. D. Mettinger)에 의해 지적되었다. 즉,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 중 많은 경우 그 표면적(일차적) 의미인 하나님의 속성(attribute)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sup>3)</sup> ‘주님의 영광’이 지시하

\* 감리교신학대학교, 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안양대학교 강사, 구약학.

- 1) יהוה כבוד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마땅히 각 단어(כבוד와 יהוה)의 적절한 번역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번역 노트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כבוד만 해도 BDB는 ‘abundance, honour, glory, dignity’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름 네 글자(the Tetragrammaton, 즉 יהוה)의 번역에 관해서도 다양한 전통이 있다. 필자는 위 어구를 ‘주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할 것인데, 첫 단어를 ‘영광’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말 공인 역본들(『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을 따른 것이고, 두 번째 단어를 ‘주님’으로 번역한 것은 그 중 『새번역』을 따른 것이다(『개역개정』은 ‘여호와와 영광’, 『공동개정』은 ‘야훼의 영광’, 『새번역』은 ‘주님의 영광’으로 번역). יהוה의 우리말 번역에 관한 논의로는 민영진, “‘여호와’를 ‘주(主)’로 번역함”, 『신학논단』 20 (1992), 295-310을 참조하라.
- 2) 출 16:7, 10; 24:16, 17; 40:34, 35; 레 9:6, 23; 민 14:10, 21; 16:19, 42[히 17:7]; 20:6; 왕상 8:11; 대하 5:14; 7:1, 2, 3; 시 104:31; 138:5; 사 35:2; 40:5; 58:8; 60:1; 겔 1:28; 3:12, 23; 10:4(2회), 18; 11:23; 43:4, 5; 44:4; 합 2:14.
- 3) Tryggve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18 (Lund: CWK Gleerup, 1982), 80-115, 특히 106-108. 제사장적 ‘카보드 신학’에 대해서는 위 메팅어의 책 외에 John T. Strong, “God’s Kabod: The Presence of Yahweh in the Book of Ezekiel”, M. S. Odell and J. T. Strong, eds.,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 SBL

는 대상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은 같은 제사장 전통에 있는 P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sup>4)</sup> 메팅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은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sup>5)</sup> 둘째, ‘주님의 영광’의 술어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온다.<sup>6)</sup> 셋째, 문맥이 ‘영광’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것을 암시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다.<sup>7)</sup>

만약 메팅어의 주장이 옳다면 에스겔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님의 영광’을 존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주님의 영광’의 중심어는 ‘영광’이므로 우리말 어법상 ‘주님의 영광’을 존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영광’을 가리키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는 말이라면 ‘주님의 영광’은 존대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본 번역 노트에서는 메팅어의 주장대로 ‘주님의 영광’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지,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을 존대해야 할 경우가 있는지를 본문과 그 문맥을 살펴봄으로 논의하려 한다.<sup>8)</sup>

## 2.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의 존대: 우리말 공인 역본의 경우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יהוה כבוד)은 10회 사용된다(1:28; 3:12, 23; 10:4[2회], 18; 11:23; 43:4, 5; 44:4). ‘주님의 영광’과 거의 같은 뜻을 지니는 ‘케보드 엘로헤 이스라엘’(כבוד אלהי ישרא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5회 사용된다(8:4; 9:3; 10:19; 11:22; 43:2). 우리의 논의에서 위 사례들을 다 살필 필요는 없다. ‘주님의 영광’은 3인칭으로만 사용되므로(즉 1인칭이나 2

---

Symposium Seri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69-95를 참조하라. ‘영광’(כבוד)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실체화 이론(hypostasis theory)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실체화 이론에 관한 간략한 논의를 위해서는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17:2 (2011), 128-137을 참조하라.

- 4) Tryggve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106-108.
- 5) Ibid., 107. 그 근거로 메팅어는 겔 9:3-7; 43:6-11; 44:4-5을 든다. 메팅어는 BHS와 침멀리(Walther Zimmerli)를 따라 9:4와 44:5의 יהוה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Zimmerli, *Ezekiel*, 2 vol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1983), 1:224, 2:443.
- 6) 3:12(본문 수정, 아래 표의 주 참조); 9:3; 10:4; 10:18; 43:2, 4. Tryggve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107.
- 7) 10:19-20. 또한 43:2, 4와 44:2를 비교하라. Tryggve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107.
- 8) 에스겔서는 ‘주님의 영광’과 거의 같은 의미로 כבוד אלהי ישראל(‘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사용하므로(8:4; 9:3; 10:19; 11:22; 43:2), 이하의 논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포함한다. 아래를 보라.

인칭으로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어구의 존대 문제는 ‘주님의 영광’이 주어일 경우 그 서술어만 살피면 된다. 위 본문들 중 ‘주님의 영광’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가 아니어서 존대법과 무관한 경우는 1:28과 10:4(두 번째 경우) 두 곳뿐이다. 다른 본문들에서는 ‘주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로 번역된다. 아래 표는 ‘주님의 영광’(처음 여덟 절)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아래 다섯 절)의 술어들을 우리말 공인 역본들이 번역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표에서 강조된 것은 술어를, 음영이 있는 칸은 ‘영광’이 존대된 경우를 나타낸다).

	술어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3:12*	מִמְקוֹמוֹ אוּ מִמְקוֹמוֹ בְּרוֹם... 또는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있던 자리에서 떠오르면서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3:23	עָמַד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었다	머물러 있었는데
10:4†	וַיֵּרָם... עַל מַפְתָּן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 있는 데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셨다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 갔고
10:18	וַיִּצֵא... וַיַּעֲמֵד	떠나서... 머무르니	떠나... 멈추셨다	떠나... 머물렀다
11:23	וַיַּעֲלֵךְ... וַיַּעֲמֵד	올라가... 머무르고	떠올라... 멈추었는데	떠올라... 머물렀다
43:4‡	בֵּית אֱלֹהֵי הַבַּיִת	성전으로 들어가	[야훼께서 영광에 싸여]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주님께서 영광에 싸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43:5	מָלְא	가득하더라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가득 채웠다
44:4	מָלְא	가득한지라	가득 차 있었다	가득 차 있었다
8:4§	וַהֲנִיחָם שָׁם נִעְלָה... ? ...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보았다	거기에 있는데
9:3**	אֵל מַפְתָּן... ... ?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떠올라... 문턱으로 나오시어...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 갔다
10:19	עַל־יָהּ מִלְּמַעְלָה	그 위에 덮였더라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11:22	עַל־יָהּ מִלְּמַעְלָה	그 위에 덮였더니	거룹들 위에서는... 있었다	그들 위에 머물렀다
43:2	בֵּית	오는데	나타나는 것이었다	오는데

\* 『개역개정』은 MT를 그대로 번역하였고,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BHS의 수정을 받아들여 원문의 ‘바룩’(בְּרוּךְ) 대신 ‘버룸’(בְּרוֹם)을 번역하였다. NRS, NET 등도 BHS의 수정을 받아들인다.

† 이 절에는 ‘케보드 아도나이’가 두 번 나온다. 이 중 두 번째 것만 우리말 역본에서 주어로 번역된다.

‡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이 구절의 ‘케보드 아도나이’를 의역하여 주어를 ‘주님’ 혹은 ‘야훼’로 적었다. 우리말 공인 역본에서 에스겔서의 ‘케보드 아도나이’를 의역한 것은 이 두 곳뿐이다.

§ 『공동개정』의 번역에서 ‘케보드 아도나이’는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 『개역개정』은 원문의 ‘나알라’(נאלה)를 생략하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볼 수 있듯 공인 역본의 번역 대부분에서 ‘주님의 영광’은 존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개정』의 세 곳이 ‘주님의 영광’을 존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10:4의 ‘옹기셨다’, 10:18의 ‘멈추셨다’, 9:3의 ‘나오시어’). 또 43:4의 경우 『공동개정』과 『새번역』이 공히 ‘케보드 아도나이’를 ‘주님/야훼께서 영광에 싸여’라고 의역한 것도 흥미롭다. 『공동개정』이 몇 곳이 ‘주님의 영광’을 존대한 것, 또 43:4의 ‘케보드 아도나이’를 『공동개정』과 『새번역』이 ‘주님/야훼께서 영광에 싸여’라고 번역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첫째, 『공동개정』 번역 위원에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존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둘째, 『공동개정』과 『새번역』의 번역 위원에게 43:4의 ‘케보드 아도나이’는 ‘주님/야훼’를 가리키는 대용어로 이해되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둘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즉 에스겔서의 ‘주님의 영광’(כבוד יהוה)이 주님을 가리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 3. 문맥에 근거한 ‘주님의 영광’의 의미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영광’을 가리키는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지를 알려면 문맥을 살펴야 한다. ‘주님의 영광’(כבוד יהוה)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כבוד אלהי ישראל)이 나오는 문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우리말 번역은 『새번역』에서 온 것이다).

#### 3.1. ‘영광이 성전을 채우다’

43:5 והנה מלא כבוד־יהוה הבית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44:4 והנה מלא כבוד־יהוה את־בית יהו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 3.3. ‘영광이 서 있다’

3:23

והנה־שם כבוד־יהוה עמד

그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새번역』은 ‘아마드’(עמד)를 ‘머무르다’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근거한 문자적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자가 이해한) 문맥에 근거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BDB는 ‘아마드’의 뜻을 크게 둘로 보는데, 첫 번째 뜻은 ‘서 있다’(take one’s stand), ‘선 자세로 있다’(be in a standing attitude)이고, 두 번째 뜻은 ‘움직임을 멈추다’(cease moving)이다. 필자는 둘 중 더 자연스러운 뜻은 첫 번째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본문 바로 앞에는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같은 절)라는 말이 있다. 에스겔이 이동한 후 들에 도착한 상황에서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가 ‘(움직임을) 멈추었다’라든가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반면 그 존재가 (가서 보니) ‘서 있었다/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영역 성경들의 경우도 NRS는 “and the glory of the LORD *stood* there”, TNK은 “there *stood*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번역하였고, 특히 NET는 “the glory of the LORD was *standing* there”라고 번역하였다(필자의 강조). 그렇다면 3:23의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한다. 영광의 기운이 서 있는 자세를 취한다고 상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곳의 ‘주님의 영광’은 존대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자연스럽다.

## 3.4. ‘영광이 이동하다/머물러 있다’

3:12

ברוך כבוד־יהוה ממקומו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ברוך 대신 ברום으로 읽음. 위 표의 주 참조.]

8:4

והנה־שם כבוד אלהי ישראל כמראה אשר ראיתי בבקע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11:23

ויעל כבוד יהוה מעל חוך העיר ויעמד על־ההר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43:2

והנה כבוד אלהי ישראל בא מדרך הקדים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3:4

וכבוד יהוה בא אל־הבית

주님께서 영광에 싸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위 본문들에서 ‘주님의 영광’은 이동하거나(3:12; 11:23; 43:2, 4), 이동을 멈추거나(11:23),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8:4).<sup>10)</sup> 이런 경우 술어만을 보고 ‘영광’이 기운을 가리키는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기운 또한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23의 경우는 11:22에 관한 앞의 우리의 논의를 기억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네 구절의 경우는 문맥만 보아서는 ‘영광’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적잖은 에스겔서 본문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을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말 번역자는 존칭 어미(‘-시-’)를 넣은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제1번역과 대안 번역으로 모두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에스겔서에서 ‘주님의 영광’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로 번역될 수 있는 본문은 모두 열셋이다. 이 중 위 어구가 기운을 표현한 것이 확실한 본문은 2곳이고(43:5; 44:4),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본문은 7곳이고(3:23; 9:3; 10:4, 18, 19; 11:22, 23), 둘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은 본문은 4곳이다(3:12; 8:4; 43:2, 4). 존칭어미 ‘-시-’에 관한 광범한 의미론적, 통사론적 논의에서 이관규는 ‘-시-’의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화자의 높임 의도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sup>11)</sup> 그렇다면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는 성경 독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주님의 영광’을 존대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제1번역 또는 대안 번역에 존대를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sup>12)</sup>

10) 11:23의 עָמַד는 앞의 예들과는 달리 ‘서 있다’보다는 ‘멈추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바로 앞에 ‘주님의 영광’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11) 이관규, “‘-시-’의 의미와 통사”, 이승명 편, 『추상과 의미의 실재』(서울: 박이정, 1998), 563-583, 특히 580-581.

12) 성경 번역에 있어서 존대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을 참조하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17:2 (2011), 128-137.
- 민영진, “‘여호와’를 ‘주(主)’로 번역함”, 「신학논단」 20 (1992), 295-310.
- 이관규, “‘-시-’의 의미와 통사”, 이승명 편, 『추상과 의미의 실제』, 서울: 박이정, 1998, 563-583, 특히 580-581.
-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Strong, John T., “God’s Kabod: The Presence of Yahweh in the Book of Ezekiel”, M. S. Odell and J. T. Strong, eds.,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 SBL Symposium Seri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 Mettinger, Trygve N. D., “The Name and the Glory: The Zion-Sabaoth Theology and Its Exilic Successors,”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24:1 (1998), 1-24.
- Mettinger, Trygve N. D.,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18, Lund: CWK Gleerup, 1982.
- Zimmerli, *Ezekiel*, 2 vol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1983.